

해외 건설사업 리스크, 조기 경보 체계로 선제 대응해야

- 올 상반기에 잠재 리스크 영향 본격화, Risk-EWS 활용도 높을 듯 -

유위성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wsyoo@cerik.re.kr

20 15년 해외 건설사업의 수주 규모가 전년도 대비 약 25% 감소¹⁾하고, 2012년 이후 수주한 사업의 준공 시점이 도래하면서 잠재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을 계획할 때 설정했던 당초의 준공 시점이 달라지는 사업 건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 리스크와 위기 임박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제적 리스크관리는 위기 임박 상황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관리 활동이고, 나아가 손실의 현실화를 최소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 3년 간 발표된 해외 사업의 손실 규모가 약 6조원을 초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위기 관리에 대한 집중적 노력이 요구되고, 위기 임박 상황을 줄일 수 있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준공 시점이 임박한 사업의 총 도급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리스크의 통제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 향상이

절실하다. 해외 사업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 리스크의 최근 추이를 분석한 결과, 누적된 잠재 리스크의 파급 효과는 2016년부터 기업의 자본 건전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 소개된 해외사업 리스크 조기경보체계(Risk-EWS)²⁾를 기업의 내부 환경에 맞춤형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면 선제적 대응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 차원의 해외 사업 잠재 리스크를 탐색하여 입체적인 의사결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isk-EWS 운용 결과와 시사점

지난해 1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조기경보체계(Risk-EWS)를 구축하여 해외 사업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도출하고 산업에 대한 조기 알람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Risk-EWS는 리스크 지수(IPRI), 불안정 지수(UI), 민감도 지수(SI), 그리고 현황·경보·예측

1) 출처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해외건설협회.

2) 해외사업 잠재 리스크 조기경보체계(Risk-EWS)는 2015년 11월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구축하여 산업 차원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현황과 향후 전망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표 1〉 2015년 4분기 민감도 지수(SI) 매트릭스

구분	MENA (SI=55.2%)	Asia Pacific (SI=34.5%)	America/Europe (SI=10.3%)
건축	6.1%	6.5%	0.02%
토목	9.4%	4.3%	0.3%
산업설비	39.7%	23.4%	10.0%
기타	0.03%	0.2%	0.01%
합계	100%		

구분	A규모 (1,000억원 미만) (SI=0.5%)	B규모 (1,000억~ 5,000억원) (SI=22.1%)	C규모 (5,000억~ 1조원) (SI=29.8%)	D규모 (1조원 이상) (SI=47.7%)
건축	0.13%	3.6%	3.2%	5.7%
토목	0.13%	6.5%	3.7%	3.6%
산업설비	0.14%	11.8%	22.9%	38.3%
기타	0.07%	0.2%	0.02%	0.01%
합계	100%			

구분	A규모 (1,000억원 미만) (SI=0.5%)	B규모 (1,000억 ~5,000억원) (SI=22.1%)	C규모 (5,000억~ 1조원) (SI=29.8%)	D규모 (1조원 이상) (SI=47.7%)
MENA	0.1%	8.1%	15.9%	31.2%
Asia Pacific	0.4%	10.2%	9.7%	14.3%
America & Europe	0.01%	3.8%	4.2%	2.3%
합계	100%			

(2WF) 맵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스크 지수(IPRI)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잠재 리스크 규모를 추정하여 산업 차원에서 체감하는 잠재 리스크 규모를 지수화한 것으로 4개의 공종, 3개의 권역, 4개의 사업 규모로 세분화될 수 있다. 불안정 지수(UI)는 리스크 지수(IPRI)의 변동 폭을 설명하며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프로젝트관리 체계의 일관성과 역량을 간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수이다. 민감도 지수(SI)는 수행되고 있는 사업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수화한 것으로, 11개 영역(4개 공종, 3개 권역, 4개 사업 규모)으로 분류되어 특정 시점에서 전체 산업에 미치는 잠재 리스크의 부정적 결과를 추정하는 데 활용된다. 이러한 지수들을 활용하여 현황·경보·예측(2WF) 맵에 사업 진행 현황, 잠

재 리스크 증가에 대한 조기 경보, 향후 사업 성과 추이에 대한 전망을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Risk-EWS 운영 후 도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과 2016년에 준공이 예정된 사업들의 총 도급 규모를 감안할 때 리스크 지수(IPRI)와 불안정 지수(UI)는 당분간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및 아프리카(MENA) 권역에 1조원 이상의 산업설비 사업의 잠재 리스크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발주처의 재정 악화, 지속적 유가 하락, 공사 대금 지연 등의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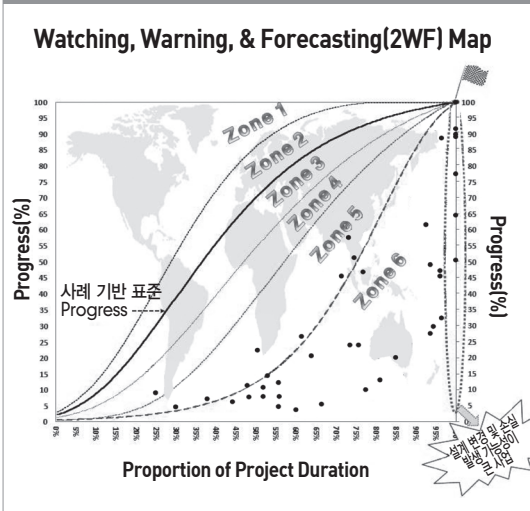
〈표 1〉과 같이 공종별, 권역별, 규모별 사업의 민감도 지수(SI)를 살펴본 결과, 산업설비 사업은 약 72%, MENA 권역은 약 55.2%, 1조원 이상 사업은 약 38.3%의 민감도 지수(SI)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진도(progress) 실적 기반의 현황·경보·예측(2WF) 맵을 분석한 결과(〈그림 1〉 참조), 사업 기간의 50% 이상을 소진했지만 실적은 30% 이하인 사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실의 현실화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선제적 대응 - 수익성 제고, 이윤 극대화를 위한 시작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잠재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수주한 사업들의 준공 시점이 도래하면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2015년을 시작으로 2016년 상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 대응 및 관리에 집중하여 손실의 현실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주 및 수행 단계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위기 임박 상황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것이 선결

〈그림 1〉 집중적 대응 및 통제가 요구되는 사업 현황
(2015년 4분기 기준)



주 : 각 점들은 단위 사업의 진행 현황 및 추이를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의 규모, 공종, 국가 기업, 수행 기간 등의 정보와 연계되어 있음.

과제이다. 조기경보체계(Risk-EWS)가 사업의 수익성 감소와 손실 규모 증가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차원에서 잠재 리스크 추이와 규모를 탐색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사업과 시점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리스크 포트폴리오 관리와 수익성 제고 전략 수립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본고에 제안된 해외사업 잠재 리스크 조기경보체계(Risk-EWS)는 산업 차원의 사전적 모니터링 기능과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정부의 금융 정책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Risk-EWS, 해외 사업 수행 성과 개선을 위한 '나침판'

Risk-EWS를 활용하는 주체와 용도에 따라 기대 효과가 상이하다. 단위 사업의 사업 책임자가 활용할 경우 사업의 건전한 수행 현황을 준공 때까지 일관성

있는 체계로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어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의 의사 결정 그룹은 사업의 현황과 잠재 리스크 규모 추이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해외 사업의 수익성 향상과 위기 상황 최소화를 위한 경영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산업 차원에서는 금융 지원 정책 수립과 공적 재원 및 자금 지원이 시급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제공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들은 시장 환경 분석과 함께 국내 건설기업들이 수행하는 사업들의 잠재 리스크 추이를 투자 결정과 연계하여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 해외 사업에 대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금융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손실의 현실화를 축소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의 적시성 확보가 절실하다. 특히, 해외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진출국의 사업 수행 여건에 따른 사업 성과에 대해 산업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다. 이러한 금융 지원과 진출국의 특성에 대한 데이터 축적으로 피드백에 의한 학습 효과(Lessons Learned)를 향상시키고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에 대한 투자 및 보증 주체도 잠재 리스크의 총체적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성 평가와 수익 사업 모델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건설산업의 손실은 공공 재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조기경보체계(Risk-EWS)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면, 기업 및 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CERIK